

“5년 전 탄핵정국 지나며 영화 주제 잡혔죠”

10일 개봉 ‘헌트’ 이정재 감독 연출 데뷔작
첩보액션이지만 1980년대 한국 현대사 핵심 배경
정우성 “김정도와 박평호, 저와 정재씨 모습 닮았죠”

“칸에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부터 각색을 다시 했습니다. 대사도 꽤 많이 수정했고요. 정보가 많을 수록 헛갈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정보를 최대한 배제했습니다.”

이정재는 개봉을 일주일 앞둔 영화 ‘헌트’를 아직도 손보고 있다고 했다. 지난 5월 칸영화제 일정에 맞추느라 부족했던 사운드 믹싱과 색 보정 작업도 하고 있다. 이정재는 “조금 더 날렵하게 편집했다”고 말했다.

오는 10일 개봉하는 ‘헌트’는 이정재의 연출 데뷔작이다. 1983년 국가안전기획부를 배경으로 해외팀 차장 박평호(이정재 분)와 국내팀 차장 김정도(정우성)가 서로를 스파이로 의심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다. 촬영하면서 총알 1만 발을 쓴 첩보액션이지만, 1980년대 한국 현대사가 핵심 배경으로 깔려 있다.

‘헌트’는 5년 전 탄핵 정국을 지나면서 메시지 짙은 사회파 영화로 방향을 잡았다. “왜 우리는 이렇게 심하게 갈등해야 할까. 과연 누가 우리를 이렇게 갈등하게 만든 걸까. 우리의 신념은, 나의 신념은 옳은 것일까. 이런 주제라면 이야기해볼 만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포기에서 용기 쪽으로 가다 보니 과감해진 것 같습니다.”

이정재는 “서로 다르다는 이유로 싸우지 말자는 게 주제인데, 영화가 조금이라도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며 “균형을 잡기 위해 고민을 많이 했고 주변 의견도 많이 들었다”고 설명했다.

1년에 한 번씩 시나리오를 고치고 정우성에게 보여주며 의견을 들었다. 공을 들이다보니 ‘헌트’를 준비하는 동안 출연한 영화와 드라마가 ‘오징어 게임’을 비롯해 일곱 편이 됐다. 그는 “기대치를 뛰어

넘어야 노력을 다했다고 생각한다. 저와 우성 씨는 기대치만큼 하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 했다.

연출과 주연을 동시에 맡은 이정재는 촬영을 마치면 시나리오를 고치고 배우들에게 보내주며 밤낮으로 작업했다. 그는 “시나리오를 직접 쓰니까 배우로서 작품에 좀더 빠져들고 이해도가 높아지는 장점이 있었다”면서도 “연기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다”고 말했다.

이정재를 글로벌 스타로 만든 ‘오징어 게임’은 다 음 달 수상작이 결정되는 제74회 에미상에서 작품상을 비롯해 14개 부문 후보에 올랐다.

“오징어 게임’이 성공하면서 외국에서 이정재와 다른 배우들을 알아봐주시는 호응도가 제가 상상한 것 곱하기 100 정도예요. 이제 나이도 좀 됐고, 청춘스타도 아이들도 아닌 배우에게 외국 식당에서 서비스를 줄 정도니 신기하기도 합니다. 이 기회에 한국 콘텐츠를 해외시장에 많이 알려야겠다는 사명감도 들어요.”

영화 ‘헌트’의 주인공 김정도와 박평호는 두 인물을 연기한 배우 정우성과 이정재를 닮았다. 서로 다른 사람이지만 각자 신념을 이루기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붓는 모습이, 또 함께했을 때 더 빛을 발한다는 점이 그렇다.

정우성은 “다르지만 비슷한 두 사람을 보면서 이정재 씨와 나의 사적 모습에 비유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김정도와 박평호는 서로 다른 고민에 충실하잖아요. 농인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형태의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런데 객관적으로 봐서 보면 비슷하다고 할 수 있죠. 자기 신념을 가지



영화 ‘헌트’ 감독 겸 배우 이정재(왼쪽)와 배우 정우성.

고 어떤 지향점에 도달하기 위해 끊임없이 다가가기요. 우리 둘도 성향은 다르지만 영화에 있어 진지하다는 건 똑같아요.”

정우성은 ‘헌트’에서 안기부 국내팀 차장 김정도를 연기했다. 군인 출신으로 과거 광주학살을 통해 국가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폭력의 참상을 경험한 인물이다. 이후 안기부 요원이 된 그는 자신의 목표를 위해 거침없이 전진한다.

“김정도는 나름대로 억울함이 있었을 거예요. 군인답고 싶었는데 군인답지 못한 폭력을 행한 가해자 입장에 섰으니까요. 그 아픔의 무게를 인물에 실으려 노력했어요. 전사(前사)가 확실하기 때문에

캐릭터를 디자인하기는 편했지만,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감정을 마음속에 있어야 하는 만큼 무겁기도 했습니다.”

‘헌트’는 정우성과 이정재가 23년 만에 재회한 작품이다. 정우성은 “이정재와 정우성의 연기 대결이 이번 작품의 매력이다. 정재 씨와는 당연히 늘 같이 작품을 하고 싶다”고 했다.

“예전에는 두 캐릭터가 ‘멋져야 한다’는 막연함을 쫓았던 것 같아요. 멋이 뭐예요? (웃음) 추상적인 걸 쫓다 보니까 막연했고, 채울 수 없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두 캐릭터의 고민, 부딪히는 이유처럼 내면적인 걸 찾아 들어가게 됐어요. 이번 작품을

통해 자신감이 생겼죠. 둘이 ‘할 만하다’ 싶은 시나리오가 있다면 당장이라도 또 할 거예요.”

친구이자 동료인 이정재가 담아낸 스크린 속 자신의 모습에는 “저를 애정하고 관찰하고 담아냈기 때문에 새로운 모습이 담길 수 있는 여지가 확실히 많았던 것 같다”면서 “시사회 끝나고 동료 배우들이 와서 ‘멋있다’고 해주더라”며 웃었다.

정우성도 자신의 첫 장편 연출작 ‘보호자’도 올해 개봉을 앞두고 있다. 그는 지난 1월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고요의 바다’ 제작자로 나선 데 이어 영화감독 데뷔까지 배우를 넘어 영화 전반에서 새로운 도전을 지속하고 있다. /연합뉴스

TV조선 PD 줄사퇴... ‘미스트롯’ 서혜진 제작사 합류

TV조선 예능국 주요 PD들이 회사를 떠나 서혜진 전 제작본부장이 설립한 독립 제작사 크레이 스튜디오에 합류했다.

3일 방송계에 따르면 서혜진 PD와 함께 TV조선 간판 예능을 만들어온 황인영, 이상혁, 이국용, 손슬지, 이의엽 PD 등이 줄줄이 퇴사해 서 PD가 설립한 크레이 스튜디오로 이적했다.

황 PD는 서 PD와 함께 ‘미스트롯’, ‘개나리학당’, ‘금요일은 밤이 좋아’, ‘동원아 여행가자’ 등을 제작했고, 이국용 PD는 ‘연애의 맛’, ‘우리 이혼했어요’ 등을 연출했다.

이상혁, 이의엽 PD는 ‘내일은 국민가수’, 손슬지 PD는 ‘사랑의 콜센타’ 등을 서 PD와 함께 제작한 바 있다.

‘서혜진 사단’이 합류한 크레이 스튜디오는 MBN과 손잡고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 ‘볼타는 트롯맨’, 추석 특집 ‘우리들의 트로트’, ‘우리들의 남진’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9월 방송 예정인 ‘우리들의 트로트’에는 트로트 가수 설운도와 전유진 등 총 22명이 출연하고 ‘우리들의 남진’에서는 가수 남진이 여러 후배와 함께 무대를 꾸민다.

MBN 추석 특집 총연출을 맡은 황인영 PD는 “최고의 가수와 최고의 스태프가 최고의 무대를 만들기 위해 모였다고”며 “제작진 모두 그 어느 때보다 설레는 마음으로 시청자를 만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미스트롯’ 등 인기프로그램을 제작한 TV조선 서혜진 PD 사단은 퇴사 후 가수 남진이 후배들과 노래를 부르는 ‘우리들의 남진’을 제작한다.

BTS, ‘달려라 방탄’ 10개월 만에 재개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자체 예능 프로그램 ‘달려라 방탄’을 10개월 만에 재개한다. 방탄소년단은 1일 공식 소셜미디어(SNS)에 공개한 티저 영상에서 “달려라 방탄”이 10개월 휴식 끝에 드디어 다시 찾아왔다”며 “재충전을 했기에 더 재미있을 것이니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 8월 시작한 ‘달려라 방탄’은 방탄소년단의 첫 야외 리얼 버라이어티 예능 프로그램이다.

지난해에는 나영석 PD와 협업한 콘텐츠를 공개한 바 있으며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 유승민 대한탁구협회 회장이 출연하기도 했다. 새롭게 시작하는 ‘달려라 방탄’은 오는 16일 위버스, 브이라이브, 유튜브 등을 통해 볼 수 있다. /연합뉴스

MZ세대 가수들 선배들 명곡 다시 부른다 SBS ‘싱포레스트’ 26일 첫방

MZ세대 가수들이 선배들의 명곡을 요즘 감성으로 다시 부르는 SBS 음악 프로그램 ‘싱포레스트’가 오는 26일 시청자들을 찾는다.

결그룹 2NE1 출신 박봄과 정승환, 헤이즈, 김필, 정세운, 보이그룹 펜타곤 등이 출연해 1980년대부터 2000년대에 큰 인기를 끌었던 노래를 리메이크하는 무대를 선보인다.

‘싱포레스트’는 경기 시흥과 강원 인제에서 녹화할 예정이며 오는 26일 밤 11시 20분 첫 회가 방송된다. /연합뉴스

다시 돌아가는 자연의 집

수 목 장

누구에게나 필수인 영원한 보금자리가 있습니다.

1522-9341